

### 第二節 上祖略史 및 地誌

#### 全義李氏本源

始祖高麗太師諱棹(初名齒)(初居本縣)當麗祖南征之日  
錦江水漲因護涉有功得賜名為統合三韓開國翊贊功臣官  
至三重大臣太師

由麗祖以來殆將(七百餘歲矣)松都已亡王氏之裔亦僅  
有焉則一時同功者無慮數十餘家而如坡平之尹東原之  
崔儒州之柳與吾家儷美聯輝持循閱者無幾是必子孫  
驕淫惰怠不勝於傳遠故也 太師公佐運登翊拯民於塗  
炭弘濟乎艱難其功德偉矣然君子之澤亦不過於五世子  
孫若不世念先德益勤無忝則安知顛木不甞得不知今日  
之綿延哉然則為今之子姓者寧可不自知其所由來耶

[譯文]

#### 전이의씨의 계원

시조께서는 고려 태사(太師)로諱「도(棹)」라 하신  
어른이시니 첫 이름은「치(齒)」라 하였으며(처음에 이  
곳 전의현에 사셨다) 고려 태조가 남정 길에 올라 금  
강에 이르렀을 때 마침 가을이 벌여 넘쳐 건너지 못할  
새 이를 호섭(濩涉)한 공으로 이름을 하사하고 통합삼  
한(統合三韓) 개국익찬공신(開國翊贊功臣)으로 책훈되

고 벼슬이 삼중대광(三重大臣) 태사(太師)에 이르렀다.  
고려조 이래(거의 七百年이 지나) 송도(松都)는 이미  
망하여 포씨의 후손은 겨우 몇몇밖에 남아 있지 아니  
하며, 함께 공을 세운 집안이 무려 수십여 가(家)가 있  
으나 그중에 파평윤씨 동원최씨 유주(문화)유씨와 우리  
집안만이 빛나는 자를 이 어 을 뿐으로 영광을 누리  
는 집안이 거의 없었으니 이는 오로지 자손들이 교만  
방탕하고 게을러서 유구한 전승을 이어 나가지 못한  
때문이다.

태사공께서 신홍하(신)고려의 구(구)노와 공(공)세  
우시고 백성을 도탄에서 건져 올려준 고비에서 구하였  
으니 그 공덕이 위대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훌륭한  
어른이 남기신 공덕도 그 그들이五代를 넘기지 못하  
는 법이니 만약 자손이 代代로 先代의 德을 생각하고  
더욱 힘써서 조상을 욱되게 함이 없도록 조심하지 않  
는다면 쓰러진 나무에서 결가지가 다시 나서 자라나듯  
이 재기하지는 못할 것이니 어찌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연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런즉 후손된 자 모름지기  
조상이 겪어 온 유래와 은덕을 잊지 말고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 高麗開國統合三韓翊贊功臣策勳詔書

高麗太祖天授元年戊寅八月辛亥詔曰人臣運佐時之奇略樹蓋世之高勳者錫之以分茅胙土褒之以峻秩崇班是百代之常典千古之宏規也朕出自側微才識庸下誠資群望克踐洪基當基廢暴主之時竭忠臣之節者宜行賞賚以獎勳勞等給有差朕與公等欲救生民未能終守臣節以此爲功豈無慙德然而有功不賞無以勸將來故有今日之賞公等明知朕意

- 一等 五人 洪儒 裴玄慶 申崇謙 卜智謙 崔凝
- 二等 十二人 庾黔弼 金宣平 張吉 柳車達 李棹 咸規 金宣弓 洪規 王希順 金萱述 尹莘達 朴允雄
- 三等 十人 王氏廉 秦評 堅權 朴述希 能寔 權慎 廉湘 金樂 連珠 麻煖
- 四等 二人 金洪述 朴守卿

〔譯文〕

高麗開國 및 三韓統合 翊贊功臣으로 策勳(策勳)한 조서(詔書)

高麗 太祖 천수 元年 戊寅(九一八) 八月 辛亥日 王이 조서를 내려 이르기름

신하로서 시대를 향도(嚮導)하기에 알맞은 제발(齊拔)한 계략(計略)을 운용하여 개세(蓋世)의 높은 공훈(功勳)을 세운 이에게는 영지(領地)를 떼어 식읍(食邑)을 분봉(分封)하고 높은 위치(位階)와 관작(官爵)을 주어 포상하는 것이 百代의 떳떳한 전장(典章)이며 千古의 뚜렷한 규례이다.

짐(朕)이 출신과 재식(才識)이 모두 변변치 못한 터에 군망(群望)에 힘입어 왕업의 기초를 이루하게 되었다. 횡포한 구주(舊主)를 폐출하는 혁명의 과정에서 충신의 절의를 다한 이에게는 마땅히 상을 내려 그 훈로(勳勞)를 포장(褒獎)하여야 하는 데 그 높고 낮은에는 차가 있겠다.

짐이 제공(諸公)과 더불어 하고자 한 일이 생민(生民)을 구제하기 위한 부득이한 의거였다고 할지라도 신하로서의 절의는 마침내 지킬 수 없었으니 이로써 공을 삼는다는 것은 어찌 부끄러움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공이 있었는데 포상하지 아니함은 장래를 권장하는 도리가 아님으로 오늘날의 상을 마련한 것이니 공들은 짐의 뜻을 분명하게 알기 바란다.

### 高麗開國統合三韓翊贊功臣秩

一等功臣

홍 유(洪儒) 의흥(義興), 부계(岳溪) 홍(洪氏)의 始